

요코하마 공동 성명

1. 서문

1.1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은 2014년 11월 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1.2 우리는 「난통 선언(Nantong Declaration)」, 「제주 선언(Jeju Declaration)」, 「나라 선언(Nara Declaration)」 정신을 계승하며, 3국의 협력 기틀을 제공한 2012 「상하이 액션플랜」과 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 2013 「광주 공동 합의문」에 입각하여,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우리는 문화교류와 협력이 3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촉진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미래 지향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립하는 것이 3국의 문화를 향상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2. 지난해 문화교류 프로그램 검토

2.1 우리는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채택된 "한·중·일 액션플랜"과 2013년 9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채택된 "광주 공동합의문"을

기초로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이후에 진행된 3국의 문화교류 행사를 검토하였다.

2.2 지난해, 한·중·일 3국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 행사,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및 한·중·일 박물관 공동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2.3 우리는 현재까지의 3국의 문화교류 및 협력 성과를 기초로 2015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액션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동아시아 문화도시 -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3.1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중국 취안저우 시, 일본 요코하마 시 간에 개최된 문화교류 행사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3.2 우리 한·중·일 3국은 2015년부터 매해 각국이 한 개씩의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주최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사정에 의해 문화도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3.3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주시, 중국의 칭다오 시, 일본의 니가타 시를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며 2014년 경험에 기초하여 2014년과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3.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교류가 3국의 관계를 깊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포함한 3국의 도시들이 연계하여 문화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5 우리는 2014년 4월 베트남 후에 시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3 문화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아세안 문화도시 간 협력을 한·중·일 3국의 검토를 거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예술가 교류 및 양성 장려

4.1 우리는 전통예술, 현대예술 및 뉴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가, 특히 한·중·일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 예술가의 육성과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4.2 우리는 2013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와 2014년 9월 4일 요코하마시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중·일 예술제가 3국의 탁월한 전통과 현대 문화예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을 확인하였고, 매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주최국에서 한·중·일 예술제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3 우리는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상대방 국가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방 국가에 문화예술계 청년을 포함한

주요 인사를 동아시아 문화사절단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4.4 또한, 우리는 예술가, 특히 청년 예술가의 한·중·일 3국 간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이러한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며, 예술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사와 예술가 등 전문가 양성·훈련을 위한 3국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5. 문화시설과 문화기관 교류

우리는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자연재해로부터의 문화재 보호 협력, 연구자 상호교류와 사례발표 등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과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공동 기획특별전과 2016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의 새로운 공동 기획 특별전 개최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는 보다 많은 3국의 문화기관 간 대화, 교류, 협력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3국의 문화기관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6.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 공유 및 협력 증진

6.1 우리 한·중·일 3국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 문화유산을 잘 보존, 전수하여 인류공동유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한·중·일의 자연재해 극복 사례 공유를 통해 세계 각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후손에 전하려는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와 경제성장에 균형 있게 대처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6.2 우리는 유네스코 후원을 받는 무형문화재 분야의 각국 카테고리 2센터들은 축적된 지식과 연구수행,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보다 큰 공동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은 각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확인하였다.

6.3 우리는 문화유산 국제협력 포럼 등을 통해 각국이 보유한 유·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을 위한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사례와 정보를 교환하여 각국의 문화유산 국제협력에 기여하며 향후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7. 문화산업 협력과 저작권 보호 강화

7.1 우리 한·중·일 3국은 뛰어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이 차세대의 주요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된 한·중·일 문화산업 포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이와 같은 교류 및 협력을 지속시키며 다양한 형태의 국제

문화산업행사에 한·중·일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할 것이다.

7.2 우리는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 성장 및 문화예술 증진에 불가결한 요소인 창작활동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에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품 사용과 유통환경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8. 정부차원 대화 심화

우리는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문화장관회의와 함께 각급 회의를 개최하여 3국 대화를 보다 심화하기로 하였다.

9. 201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우리는 2012년에 채택한 상하이 액션플랜(2012~2014)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문화장관회의에서 3개년의 새로운 액션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액션플랜은 한·중·일이 동의한 공동 성명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새로운 액션플랜의 공통 관심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2) 상하이 액션플랜에 규정되어 있는 한·중·일 예술제를 동아시아 지역 외 국가 및 지역에서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다.
- 3) 동아시아 문화사절단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사절단의 파견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10. 결론

우리는 2015년에 중국이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주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종료와 함께 국장급 회의를 포함한 차기 문화장관회의 준비를 착수할 것이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관련 회의 준비를 주도한다.

서명인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

일본국
문부과학성 대신
